

청주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

The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ongju City

최 종 명

서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Choi, Jong M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fe satisfaction,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sonal fact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life and life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49 university students in Chongju city to measure the demographic informati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life. As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ie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life satisfaction was classified into two factors; subjective satisfaction and other person's view of satisfaction. 2. The university students showe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life satisfaction.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Compare to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responded more positively to the life satisfaction. 4.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 factors of stud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5.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ach variable of adjustments to life and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factor, adjustment to life

I. 서론

대학생은 성인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는 성숙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으로는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시기이다. 또한 이제까지

의 지시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이 부딪쳐야 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자기탐색, 대학에서의 학습과 학문 탐구, 대학 졸업후의 진로문제, 결혼준비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적용하고 부딪치면서 새로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거나 이겨 나가는 지혜를 얻으면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 핵심적

Corresponding author : Choi, Jong Myoung
Tel : (043)299-8755 Fax : (043)299-8755
E-mail : jmchoi@seowon.ac.kr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삶에 있어서 적응이라는 과제와 함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생활 준비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Dienier(1984)에 의하면 주관적 삶의 만족감 또는 행복감은 첫째, 외적 기준으로서 규범적 의미에서 개인이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며, 둘째,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셋째, 즐거운 정서 경험에 강조를 둔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의미로서의 행복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삶에 대한 행복감 즉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이며, 개인이 설정한 기대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므로(Shin & Johnson, 1978),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해 볼 때 기준과 여건이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 사회적, 정서적 부작용 없이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수입수준, 종교유무, 결혼여부, 직업유무, 건강 등의 객관적 조건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Dienier, 1984), Campbell 등(1976)에 의하면 가족과 결혼생활, 친구관계 등이 인생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직장생활, 여가생활도 행복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오필호 등, 1996 재인용). 또한 Brief 등(1993)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되어 성격요인과 개인이 처한 상황들은 개인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매개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이상적 자아와 실제로 지각된 자아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 목표달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후회와 관련된 인지적 해석이므로, 인지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삶에 대해서 좀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오필호 등, 1996).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보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자기 효능감이었고, 가정생활만족도는 부모가, 학교생활만족도는 교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김의철 등, 1998).

이제까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노인(김명자, 1982; 이현 등, 1995; 박충선, 1998; 조명희, 2000)과 주부(김경숙 등, 1993; 이정숙 등, 1995; 김인숙 등, 1996)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가생활(김동진, 1993; 박영숙, 1999)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생활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을 밝히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대학생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청주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둘째, 성, 교육적 배경, 가족환경적 요인, 대인관계 및 문화생활 등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셋째, 대학생의 생활적용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청주시내의 3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이었다. 2000년 9월에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을 보완한 다음, 1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여 총 549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남학생 비율은 43.5%이었고 여학생은 56.5%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 5점 Likert 형의 삶의 만족도, 생활적용 및 선다형의 개

인적 변인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선행연구(오필호 등, 1996)를 토대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생활적용 문항은 선행연구(최종명, 1999)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여 각 문항 성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 관련문항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생활적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교육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전공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204명(37.2%), 자연계열이 186명(33.9%), 예술계열은 80명(14.6%)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43.5%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은 9.8%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중·고교시절 주된 성장지는 중소도시가 6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대도시로 24.4%이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환경적 요인

본인을 포함한 형제수를 살펴보면 2명인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명으로 37.0%이었다. 다음으로 형제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인 경우가 전체의 42.6%인 234명이었고 둘째인 경우 173명(31.5%), 셋째인 경우 89명(16.2%)으로 나타나서 반정도가 맏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

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93.2%로 대부분이었고, 편모가정은 4.2%이었다. 반면,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이나 편부가정, 부모 모두 없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자취하는 경우가 똑같이 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21.3%로 그 다음이었고, 하숙하는 경우는 8.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청주시 대학생의 2/3정도가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부의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대다수인 반면 모의 학력은 고졸과 중졸에 집중되어 있어 부모의 학력은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부의 직업은 회사원과 공무원 등의 사무직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21.4%,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12.6%이었고, 무직인 경우도 5.2%나 되었다. 모의 경우 59.7%는 전업주부이었고, 40.3%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정의 월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151만원~200만원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1만원~150만원으로 20.7%이었고 201만원~250만원 정도는 15.3%이었다.

3) 대인관계와 개인생활

조사대상자들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상대로는 동성친구(57.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형제 등의 가족(14.5%)이었고, 이성친구(12.2%), 선·후배(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고민을 타인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7.8%나 되었다. 또한 단순한 친구이든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든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3.1%로 나타나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61.1%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8.9%는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분야는 스포츠(11.6%), 예술(6.2), 취미오락(5.1%), 봉사(4.8%), 종교(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구 분		N	%
전공계열	인문사회	204	37.2
	자연	186	33.9
	예술	80	14.6
	가정	79	14.4
학 년	1 학년	215	39.2
	2 학년	115	20.9
	3 학년	165	30.1
	4 학년	54	9.8
성장지	대 도시	134	24.4
	중소도시	340	61.9
	읍·면	75	13.7
형제수	1	15	2.8
	2	223	40.8
	3	202	37.0
	4	65	11.9
	5	25	4.6
	6	11	2.0
	7	5	0.9
거주형태	자가	185	33.7
	친척	14	2.6
	하숙	48	8.7
	자취	185	33.7
	기숙사	117	21.3
부 학력	초등졸 이하	61	11.3
	중 졸	75	13.8
	고 졸	255	46.9
	대 졸	122	22.4
	대학원 이상	31	5.7
모 학력	초등졸 이하	110	20.2
	중 졸	136	25.0
	고 졸	243	44.6
	대 졸	52	9.5
	대학원 이상	4	0.7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49	9.2
	101-150만원	110	20.7
	151-200만원	151	28.4
	201-250만원	81	15.3
	251-300만원	59	11.1
	301만원 이상	81	15.2

다음으로 한달 평균용돈으로는 11만원~20만원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1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32.7%이었다. 이에 비해 10만원 이하인 경우 7.5% 이었고, 30만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용돈을 쓴다고 응답한 경우도 20.3%나 되었다.

종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3.2%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는 17.5%, 천주교는 12.8%이었다.

2.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10문항을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5.14%이었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요인 1은 설명력 40.35%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관적 만족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으로 24.79%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타인관점 만족도'라고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만족도 문항은 2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차원의 신뢰도(α)는 .91 과 .72이었다.

3. 개인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1) 성

삶의 만족도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으로 3을 중심으로 5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관적 만족도와 타인관점 만족도로 분류된 두 요인의 문항수가 달랐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타인관점에서 본 만족도 차원은 평균값 3.28로 만족하고 있는 경향이었으나,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한 만족도 차원은 평균 2.84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표 2>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아이겐값	누적비량 (%)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지금까지 해낸 것을 같은 처지의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한다.	0.85	0.19	4.03	40.35
		지금까지 해낸 것을 친구와 비교해 볼 때 만족한다.	0.81	0.27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과 결과에 만족한다.	0.80	0.26		
		나의 능력으로 기대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의 삶에 만족한다.	0.76	0.33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겠다.	0.69	0.18		
		나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삶에 만족한다.	0.62	0.41		
		나는 전체적인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0.60	0.53		
타인관점 만족도	나의 가족들은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나의 주변사람들은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의 삶은 우리 가족이 중요시하는 부분을 이루었다.	0.20	0.80	2.47	65.14	
		0.22	0.78			
		0.28	0.65			

<표 3> 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 분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타인관점 만족도	
성	남(n=238)	2.98	3.30
	여(n=307)	2.70	3.27
	t-value	3.76***	-0.55

*** p<.001.

면, 주관적 만족도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적 배경

먼저 전공계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예술계열 대학생은 주관적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계열 대학생의 만족도 수준은 2.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타인관점에서 본 만족도 모두 3학년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2학년과 4학년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학년의 경우 전공학과의 정해지는 시점이어서 적응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대수준과의 차이로 보이며, 4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걱정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장지에 따라서도 삶의 만족도 하위차원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읍·면 등의 농촌에서 성장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오필호 등, 1996)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가족환경적 요인

먼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삶의 만족도 하위영역인 주관적 만족도와 타인관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제수를 살펴보면 형제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출생순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서 형제수가 출생순위보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정의 월 평균소득에 따라서도 주관적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집을 떠나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타인관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족에 대하여 비교적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는 선행연구

〈표 4〉 교육적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타인관점 만족도
전공계열	인문사회 (n=186)	2.84 ab	3.27
	자연 (n=201)	2.85 ab	3.25
	예술 (n= 80)	2.95 b	3.44
	가정 (n= 78)	2.59 a	3.22
	F-value	2.71 *	0.23
학년	1 학년 (n=214)	2.80 ab	3.26 ab
	2 학년 (n=114)	2.57 a	3.15 a
	3 학년 (n=164)	3.06 b	3.42 b
	4 학년 (n= 53)	2.71 a	3.24 ab
	F-value	8.00 ***	3.17 *
성장지	대 도시 (n=133)	2.83 ab	3.29 ab
	중소도시 (n=337)	2.76 a	3.23 a
	읍·면 (n= 75)	3.08 b	3.49 b
	F-value	4.05 **	3.38 *

* $p<.05$, ** $p<.01$, *** $p<.001$.

〈표 5〉 가족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 분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타인관점 만족도
부의 학력	중졸이하(n=136)	3.01 b	3.38 b
	고 졸(n=255)	2.79 ab	3.34 b
	대졸이상(n=151)	2.71 a	3.10 a
	F-value	4.71 **	6.36 **
모의 학력	중졸이하(n=244)	2.93 b	3.36 b
	고 졸(n=243)	2.75 ab	3.26 ab
	대졸이상(n= 55)	2.73 a	3.02 a
	F-value	3.47 *	4.54 **
형제수	1 명 (n= 15)	3.41 b	3.64
	2~3명 (n=425)	2.81 a	3.29
	4명이상 (n=106)	2.80 a	3.19
	F-value	3.67 *	2.48
형제순위	말 이(n=234)	2.84	3.34
	가운데(n=129)	2.82	3.28
	막 내(n=185)	2.81	3.21
	F-value	0.06	1.47
월 평균 소득	150만원이하(n=148)	2.66 a	3.23
	151-250만원 (n=284)	2.85 ab	3.30
	251만원이상(n=113)	2.97 b	3.31
	F-value	4.67 **	0.45
모의 직업	있다(n=217)	2.76	3.26
	없다(n=323)	2.86	3.29
	t-value	-1.36	-0.43
거주형태	자 가(n=184)	2.79	3.15
	비자가(n=363)	2.86	3.35
	t-value	-1.51	-2.82 **

* p<.05, ** p<.01.

(최종명, 1999)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모의 직업여부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개인생활

이성친구의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성친구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주관적 삶

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생활에서 이성친구의 유무는 주관적 차원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만족스런 대학생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여부는 타인관점의 만족도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월 평균용돈은 주관적 만족도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표 6> 개인생활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 분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타인관점 만족도
이성친구 유 무	있다(n=254)	2.92	3.34
	없다(n=290)	2.73	3.22
	t-value	2.59**	1.81
동아리 활동여부	참여한다(n=211)	2.89	3.38
	참여하지 않음(n=330)	2.78	3.22
	t-value	1.50	2.25*
종교유무	있다(n=308)	2.81	3.29
	없다(n=237)	2.84	3.27
	t-value	-0.39	0.36
월 평균 용돈	10만원미만(n= 41)	2.56 a	3.18
	11~20만원(n=214)	2.75 ab	3.26
	21~30만원(n=177)	2.87 ab	3.32
	31만원이상(n=110)	2.96 b	3.29
	F-value	2.89*	0.43

* p<.05, ** p<.01.

보였다. 즉,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타인관점에서 평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없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생활적응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학교 및 여가생활 적응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삶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삶의 만족도와 생활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관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

<표 7>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생활적응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삶의 만족도	남학생	0.45***	0.26***	0.31***	0.31***	0.43***
	여학생	0.44***	0.21***	0.32***	0.30***	0.49***

*** p<.001.

하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 본 다음, 생활적응과 과의 관련성을 고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삶의 만족도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주관적 만족도와 타인관점 만족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 대학생은 타인관점에서 본 삶의 만족도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 차원은 약간 부정적이었다.
3. 삶의 만족도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관적 만족수준이 높았다.
4. 전공계열, 학년, 성장지 등의 교육적 배경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예술계열의 대학생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았고, 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 그리고 읍·면 등의 농촌에서 성장한 경우 주관적 만족도와 타인관점 만족도 모두 높았다.
5. 부모의 학력수준, 형제수, 월 평균소득, 거주 형태 등의 가족환경적 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주관적 만족도와 타인관점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형제수가 적고 가정의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도가 높으며, 집을 떠나 대학생살을 하는 경우 타인관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6. 이성친구, 동아리 활동, 월 평균용돈 수준 등의 개인생활 측면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성친구가 있고 월 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동아리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타인관점 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7. 삶의 만족도는 생활적응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학교 및 여가생활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수준이 보통이었는데,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다르고

상대적인 관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대학의 행사나 복지 서비스 등에서 여학생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생활적응 영역 중 특히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캠퍼스에서 보내고 있는 대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업과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쾌적한 쉼터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주지역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주제어: 생활만족도, 대학생, 개인적 변인, 생활적응

참 고 문 헌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김동진(1993). 대학생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문집, 14(1), 55.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1), 79-101.

김인숙·김진호(1996).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 대한가정학회지, 34(6), 13-26.

박영숙(1999).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7, 71-82.

박충선(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8, 30-46.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오필호 · 이은순 · 강순화 · 이은경(1996). 한국 여자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2(2), 5-132.
- 이정숙 ·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129-147.
- 조명희(200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97.
- 최종명(1999). 청주지역 대학생의 생활적용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8(3), 487-497.
- Brief, A.P., Bucher, A. H., George, J. M. & Link, K. 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Dienier(1984). Subjective well 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9-575.
- Shin, D. C. & Johnson D. M.(1978). Avoi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